



비룡소의 그림동화 225

Zoom, My Friend

사노 요코 글·그림/ 양장/ 본문 32쪽/ 가격 9,000원/ 5세부터/ 202x255
isbn 978-89-491-1247-3 74800/ 978-89-491-1000-4(세트)/
발행일 2013년 11월 29일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그림책 작가, 『100만 번 산 고양이』 작가 사노 요코가 들려주는 친구 이야기

유머와 철학이 담긴 이야기로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 사노 요코의 그림책 『Zoom, My Friend』가 (주)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Zoom, My Friend』는 진짜 친구를 찾아 나선 남자 고양이가 밧줄처럼 보잘것없고 길기만 한 뱀과 친구가 되는 여정을 발랄하고 리듬 있는 글과 개성 있는 그림으로 담아낸 매력적인 그림책이다. 개성 강하고 의기양양한 고양이와 무엇이든 품어줄 것만 같은 마음 너그러워진 뱀 친구가 티격태격하면서 친구가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우정이란 무엇인지, 누군가와 친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인연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독특한 발상을 토대로 깊은 심리를 잘 묘사하고, 이를 통해 넉넉한 삶의 철학을 전하는 사노 요코는 산케이 아동출판문화상, 고단샤 출판문화상, 일본 그림책상 등을 받은 일본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이자 소설가, 수필가로도 유명하다. 일본에서만 200만 부 이상 판매된 대표작 『100만 번 산 고양이』는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사노 요코는 작품들을 통해 그림책이 남녀노소를 아우르며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진짜 친구는 어디에 있는 걸까?

할머니와 함께 사는 남자 고양이는 어느 날, 진짜 친구를 찾아 집을 나선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친구는 보이지 않고 밧줄처럼 생긴 애가 자꾸 따라와 귀찮게 한다. 그 애는 바로 살짝 소름이 돋을 만큼 길고 반질반질한 뱀이다. 고양이는 바쁘다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 혼자 걷고 싶다고 빨리 달아나 보기도 하지만 가는 곳마다 뱀이 나타나 말을 건다. 친해지고 싶은 예쁜 여자 고양이들에게 무시를 당해 훌쩍이는 부끄러운 순간에도 어느새 다가와 별 것 아니라는 듯 위로를 한다. 다시 혼자 길을 떠난 고양이에게 뭔가가 달려 들고, 위기의 순간 뱀이 또 도움을 준다. 멀어지고 싶지만 자꾸자꾸 만나게 되는 친구, “너랑 나랑 정말 인연인 것 같지?”라며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하는 뱀 친구에게 고양이는 점점 마음을 열고 함께 할머니 집으로 돌아간다.

작가는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말쑥꾸러기에 새까맣고 못생긴 친구와 친해지고 싶지 않았는데 옆집에 살다 보니 늘 함께 붙어 다니며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결국 서로 가까워진 고양이와 뱀이 친구가 된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솔직하고 새침한 고양이와 삶을 달관한 듯 여유롭고 우직한 뱀,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두 친구는 시간을 함께하며 울고 웃는 소중한 추억을 쌓고, 진짜 친구가 되어갈 것이다. 노래를 곁들인 간결하고 리듬 있는 글과 유머와 철학, 재치 가득한 대사들을 통해 작가는 자연스럽게 친구에 대해, 관계에 대해, 인연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독자들로 하여금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

● 생생한 표정과 몸짓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잘 담아낸 사랑스러운 그림

색을 여러 번 올려 그린 묵직한 유화지만 그림 속 캐릭터들은 개성과 표정이 살아 있고 발랄하다. 특히 감정 변화가 많고 솔직한 고양이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사랑스럽다.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 삶의 깊은 철학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글과 그림이 너무나 잘 어우러져 긴 여운을 남긴다. 작은 장면들과 전체 화면을 덮는 큰 장면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초록과 노랑, 파랑색을 주조로 펼쳐지는 장면들은 세련되면서도 따듯하다.

● 작가 소개

사노 요코

1938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났다.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조형대학에서 석박사를 공부했다. 독특한 발상을 토대로 깊은 심리를 잘 묘사하고, 유머 가득한 그림과 리듬 있는 글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을 많이 발표했다. 작품으로는 『100만 번 산 고양이』, 『아저씨 우산』, 『아빠가 좋아』 등이 있다. 『아저씨 우산』으로 산케이 아동출판문학상 추천을 받고, 『내 모자』로 고단샤 출판문화상 그림책 부문을 수상했다. 2010년 11월,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향옥

동덕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나고야대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공부했다. 번역한 책으로는 「개구쟁이 아치」 시리즈, 「와하하 선생님, 왜 병에 걸릴까요?」 시리즈, 『응급 처치』, 『나는 뽀글머리』, 『깜깜해 깜깜해』 등이 있다.